

#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오 유 석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 I. 서론

“me eonta가 einai<sup>1)</sup>한다는 것은 결코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러한 탐구의 길로부터 생각을 멀리하라.” (파르메니데스 단편 7)

『소피스트』편의 중심적인 모티브는 “소피스트”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과는 다소 다르게, 『소피스트』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대신 엘레아에서 온 이방인과 테아이테토스가 주로 대화한다. 이방인은 먼저 소피스트가 기술(techne)을 가진 자라고 놓고 나서, 나눔(diairesis)의 방식을 동원해서 소피스트술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소피스트란 “말에 의한 모상(eidola legomena)을 만들어서, 이를 진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듯 보이는 기술을 가진 자”<sup>2)</sup>이다. 하지만 소피스트를 ‘모상을 만드는 자’ 또는 ‘사기꾼’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다음의 논증 중 첫번째 논증은 소피스트를

1) 회랍어의 esti(또는 on)는 영어의 is(또는 being)와 마찬가지로 “-가 존재한다”, “-이다”, “-는 사실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필자는, 다의성을 살리는 것이 더 좋을 경우에는, 이 말을 그대로 원어로 사용하겠다. 이 경우 원어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esti = is, on = esti의 분사형(즉 being), onta = on의 복수형태, einai = esti의 부정형(즉 to be), me = not, to = the(정관사), ta = to의 복수형

2) 『소피스트』 234c2-7

모상을 만드는 자로 정의할 때의 난점이고, 두번째 논증은 소피스트를 사기꾼으로 정의할 때의 난점이다.

- ① 모상(또는 유사물)은 진짜인 것(alethinon)에 닮게 만들어진(그러나 진짜와는 다른) 것이다.
  - ② 진짜인 것은 정말로 -인 것(ontos on)이다.
  - ③ 또한 진짜인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의 반대이다.
  - ④ 따라서 유사한 것(즉 진짜가 아닌 것)은 정말로 -인 것(ontos on)이 아니다.
  - 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지 않으면서 (*on ouk ontos*), 정말로 유사물이다 (*estin ontos eikon*).
  - ⑥ 이처럼 *me-on*이 *on*과 기묘하게 섞여져 있는(*peplekthai symploken*) 듯하다.<sup>3)</sup>
- ㉠ 소피스트의 기술은 사기술(*apatetiken*)이다.
  - ㉡ 그의 기술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pseude doxazein*) 된다.
  - ㉢ 잘못된 생각(*pseudes doxa*)은 -인 바와 반대되는 것(*tanantia tois ousi*)을 생각하는 것이다.
  - ㉣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me onta*를 생각하는 것이며, 다시말해 *medamos onta*가 *einai*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 그러나 우리는 *medamos onta*<sup>4)</sup>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 ㉥ 따라서 잘못된 생각이란 불가능하다.
  - ㉦ 결국 소피스트술을 사기술로 정의하려면 자기모순을 범하게 된다.<sup>5)</sup>

3) 240a8-c2

4) 앞서 필자는 *me*가 *not*을 의미하고, *on*은 *being*을 의미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me-on*은 *not being*을 뜻한다. 한편 *medamos*은 *me*보다 더 뜻이 강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5) 240d1-241b3과 237b7-238a11. 소피스트의 반론은 파르메니데스의 경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모상 = 거짓 = *me on* = *medamos on* = *on*과 반대되는 것

여기에 대해 이방인은 *me on*과 *medamos on*이 같지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소피스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거짓진술이 성립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거짓진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me-on과 진술이 **결합**해야 한다. 또한 진술은 이름과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결합한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소피스트』편 전체에서 “결합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 Ⅱ. 진술이 형상들만으로 구성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하다”고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각각을 하나로 놓고서(hypothemenoi),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sup>6)</sup>. 그런데 늦게 배운 자들(opsimatheis)<sup>7)</sup>은 “여럿이 하나이고 하나가 여럿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착함이 착하다’ 또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동일성 명제만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동일성 진술만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있는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가령 “man is man”도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man man”이라고만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이방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① 모든 것으로부터 각각의 것을 분리하는 일은, 모든 진술(logos)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 ② 왜냐하면 **형상들이 서로 결합(alleton ton eidon symploken)**

---

소피스트에게 반격을 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반론은 me-on을 <다름>의 형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medamos on을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me-on은 형상 중 하나이므로 말해질 수도 있고 다른 형상과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251a5-b5

7)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024b32에 따르면 이것은 안티스테네스의 주장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술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③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늦게 배운 자들)에게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합(heteron hetero mignysthai)을 강요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했다. 진술이 존재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ton onton hen ti genon)로 되었다는 점에서...<sup>8)</sup>

그렇다면 과연 이때 이방인이 “형상들의 결합(symplekte eidon)”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모든 진술은 형상들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테아이테토스”라고 불려진 사람은 상호연관된 형상들의 복합체(가령 납작코를 가졌으나 영리한 머리를 가진 젊은 사람)이다. 진술은 단지 형상들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sup>9)</sup>

그러나 이방인은 거짓진술의 예로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를 들고 있는데, 이 때 “테아이테토스”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263a9)”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262c10에서 “사람이 배운다”라는 예를 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방인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테아이테토스”라는 말로 의도하는 바는 형상 <사람>이 아니라 개별 자로서의 테아이테토스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라는 진술은 <사람>(또는 테아이테토스를 구성하고 있는 형상들)과 <날고 있음>이 서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하지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과 <앉아 있음><sup>10)</sup>이 필연적으로 결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sup>11)</sup> 그렇다면 테아이테토스가 서 있는 경우에도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가 참인가? 이렇게 볼 때, 모든 진술이 형상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8) 259e3-260a6.

9) Edith.W.Schipper, *The Meaning of existence in Plato's Sophist*, Phronesis vol 9(1964), 42p.

10) < >은 형상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11) 형상들 사이의 결합은 필연적인 결합이다. 가령 이방인은 254e에서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섞여 있지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진술은 형상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술이란 무엇인가? 262d6-12에서 이방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이름과 동사의 결합)을 가지고 진술(logos)이라고 한다... 어떤 대상(pragma)들은 결합하고 다른 것들은 결합하지 않듯이, 소리의 기호(이름과 동사)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결합하지 않지만, 서로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진술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진술은 이름과 동사의 결합이며, 이름끼리만 연결해도 진술이 되지 않고(가령 “사자, 사슴, 말”), 동사끼리만 연결해도 진술이 되지 않는다(가령 “뛰다, 걷다, 잠자다”). 그러면 이 때 이름과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은 이름을 “**행동을 하는 것들(tas praxeis prattonton)**에 대한 기호”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사를 “**행동(praxis)을 지칭(semainein)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행동의 주체는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나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의 예에서처럼 개별자일 수도 있고, “운동은 정지가 아니다.”의 경우와 같이 형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의 해석에 의하면, 진술(즉 이름과 동사의 결합)의 유형은 [개별자+형상]과 [형상+형상]의 둘로 나뉜다.

하지만 그렇다면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방인은 “형상들이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술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때 “형상들이 서로 결합함”은 “우리에게 진술이 생겨남”의 충분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즉 “형상들이 서로 결합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점은 249d2-4를 고려하면 더욱 명백하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움직일 수 없는 것들(akineta : 즉 형상들)과 움직여지는 것들(kekinemena : 즉 개별자들) 모두가 존재자(on)이고 전체(pan)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운동>, <정지>, <on>같은 형상들의 상호 결합가능성만을 다루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움직여지는 것들(즉 개별자들)을 다루어 줄 것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으며, 이방인도 진술을 이름(개별자 또는 형상)과 동사의 결합으로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 Ⅲ. 결합의 방식

#### 1. 형상과 형상의 결합

『소피스트』편에서 “결합한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koinonein, meignysthai, metechain, harmottein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0-253에서는 여러 단어들이 무차별적으로 쓰이다가 254-260에서는 koinonein, metechain, mignymi로 거의 통일되고 있는 반면, 261c부터는 harmottein, symploke, synthesis라는 말이 주로 쓰인다. 이런 용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플라톤의 초/중기 형상론에 의하면 형상들은 그 자체로(kath' hauto)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상들이 서로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면, 늦배운 자들의 경우처럼 어떤 진술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진술이 가능하려면 형상들이 서로 결합해야 하므로, 플라톤은 250-253에서 형상들이 서로 결합해야 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 경우 형상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253d2-e2에서 변증술을 “각각의 것들이 어떤 점에서 결합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그렇지 못한가를 종에 따라(kata genos)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한 후, 254-260에서는 중요한 형상들(megista gene)을 예로 들어, 실제로 형상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형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koinonein을 예로 들어 형상들의 결합 방식을 논의해 보자. koinonein이라는 말은 이미 247-248에서 등장했었다. 이방인은 거기에서 유물론자와 형상론자 각각의 난점을 살펴 본 후, 움직여지는 것(즉 개별자)과 움직이지 않는 것(즉 형상) 모두를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때 이방인은 koinonein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다.

나는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poiein),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도 가장 작은 영향 - 단지 한번 뿐이라도 - 이라도 받는다(pathein) 능력(dynamis)을 본성상 가지는 것 모두가 진정으로

존재한다(ontos einai)고 말한다. 나는 존재하는 것들의 기준(horos)이 이런 능력(dynamis)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놓는다.(247d8-e4)

우리는 신체에 있어서(somati) 감각을 통해(dia aistheseos), 변화하는 생성(genesei)과 교제하고(koinonein), 영혼에 있어서(psyche) 생각을 통해(dia logismou), 항상 그 자체로 똑같은 진정한 실재(ontos ousia)와 교제한다.. 이 때 “교제한다(koinonein)”란, “서로가 만날 때(apo ton pros allela synionton) 어떤 능력으로부터(ek dynameos) 생긴 영향(pathema) 또는 영향을 주는 것(poiema)”이다.(248a10-b1과 b2-7)

만약 인식함(gignoschein)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것(poiein ti)이라면, 인식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paschein). 따라서 실재(ousia)가 얕에 의해 인식된다면, 그것이 인식되는 한, 겪음을 통해 움직이게 된다(kineisthai dia to paschein). (248d10-e3)

이렇게 볼 때, 우리는 koinonein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koinonein이란 어떤 능력으로부터 생긴 영향(pathema) 또는 영향을 주는 것(poiema)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겪는(또는 영향을 받는: paschein) 것은, 그 겪음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가령 인식의 경우, 인식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것이 다른 것과 koinonein하면, 이때 영향을 받는 것은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형상들의 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상들이 koinonein 할 때, 영향을 받는 형상은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koinonein이 247-248과 254-260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 형상(또는 실재: ousia)이 움직이는 경우는 영혼에 의해 인식되는 한에서이다. 즉 이 때 영혼은 영향을 주는(poiein하는) 반면, 형상은 어떤 것을 겪음(paschein함)으로써 움직인다. 그러나 형상과 형상 사이의 결합에 이같은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상이 형상을 인식한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형상들의 결합이 인식관계를 의미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더우기 플라톤의 초/중기 형상론에 따르면, 형상들은 항상 그 자체

로(auto kath' auto) 있다. 따라서 만약 형상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움직인다면(즉 변화한다면), 이는 플라톤이 『소피스트』편에서 초/중기 형상론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텍스트상의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오히려 형상들은 결합하더라도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 듯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자.

<on>은 자신의 본성상(kata ten hautou physin), 정지해 있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250c6)

하나의 형상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eksothen periechomenas), 서로 다른 많은 형상들...(253d7-8)

위의 예들은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 이후에도 각자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철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이 결합은 새로운 것(가령 음절)을 만들어 내지만, 그러면서도 철자들 각자의 고유성은 침해받지 않는다.<sup>12)</sup>

결국 인식관계에서의 koinonein(이 때 인식되는 것은 영향을 받는 한에서 움직인다)과 형상들이 결합할 때의 koinonein(형상들은 밖으로부터 결합하므로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의 의미는 똑같다고 보기 힘들다. 이방인도 이처럼 koinonein의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horos)이, 영향을 주거나(poiein하거나) 영향을 받는(paschein하는) 능력(dynamis) 밖에 없다.”고 말한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선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마 나중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을 바꿀 지도 모르므로...

12) 철자술과 변증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철자들이나 형상들 중, 어떤 것들은 서로 결합하고, 어떤 것들은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
- ② 모든 것에 걸쳐 있으면서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를 편재적 결합항이라고 하자)이 있다.
- ③ 결합할 때 각 결합항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
- ④ 기술(또는 지식)을 가진 자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보여준다.



(247e7-8)

물론 “여기서 유보되고 있는 것은 존재의 기준이지 koinonein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247-248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존재의 기준은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 ② 그런데 koinonein이란 어떤 능력으로 인해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이다.
- ③ 따라서 koinonein하는 것은 영향을 받음을 통해 움직인다.

위의 논변에서 ①은 ②와 ③의 전제가 된다. 형상들의 결합에 있어서도, 각각의 형상들(즉 결합항)의 존재근거가 바로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②의 “어떤 능력”도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만약 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②나 ③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시 말해, 존재의 기준을 유보하고 있다면, “koinonein이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이다”라는 명제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상들은 자기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밖으로부터 결합한다. 그런데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소피스트』에서 “참여한다(metechein)”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여한다(metechein)”는 말은 본래 플라톤의 초/중기 형상론에서 개별자와 형상의 참여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가령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지만 “<운동>이 <같음>과 관련해서 <다름>에 참여한다”고 말할 때, <운동> 또는 <같음>이 개별자일 수는 없다. 더구나 『소피스트』편에서 metechain은 “개별자가 형상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한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개별자와 형상의 관계가 논의되는 261-264 사이에는 metechain이 아예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반면 250-260사이에는 metechain이 18번이나 쓰였다.) 이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플라톤이 『소피스트』에서 초/중기 형상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초/중기 형상론의 metechain과 『소피스트』에서 metechain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소피스트』편에서 초/중기 형상론을 포기했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

은 아니다. 초/중기 형상론이 『소피스트』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은, 거짓진술을 논의할 때 분명해질 것이다.

## 2. 이름과 동사의 결합

이제 다시 “결합한다”의 용례로 돌아가 보자. 이방인의 관심은 “어떤 것은 서로 결합하지만 어떤 것은 결합하지 않는다”(250-253)에서 “형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254-260)로 변화했다. 그런데 261c부터는 “이름과 동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로 주제를 다시 바꾸고 있다. 이방인은 소피스트의 마지막 반론(“me-on이 진술과 결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테아이테토스가 낙담하자,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구나: 순서대로 말해졌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delounta ti) 것들은 서로 결합하고, 함께 있으면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meden semainonta) 것들은 결합하지 않는다.(261d10-e2)<sup>13)</sup>

254-260의 논의는 거짓진술의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본성상 결합할 수 없는 형상들을 결합한 것이 거짓진술이다.(가령 “<정지>가 움직인다”) 물론 이같은 거짓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거짓진술은 개별자를 포함하고 있다.(가령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이때문에 261c이후로 이방인은 형상끼리의 결합을 이름과 동사의 결합으로 확대시킨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름은 형상일 수도 있지만 개별자일 수도 있으므로, 진술(즉 이름과 동사의 결합)은 [개별자+형상]의 형태이거나 [형상+형상]의 형태일 것이다. 261c이후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이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에는 중대한 난점이 있다. 이방인은 249d2-4에서 움직여지는 것(개별자)과 움직일 수 없는 것(형상)을 모두 존재하

13) 261d10-e2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결합”은 이름과 동사의 결합을 뜻하며(가령 “사람이 배운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결합”이란 이름끼리의 결합(가령 “사자, 사슴, 말”) 또는 동사끼리의 결합(가령 “걷다, 뛰다, 잠자다”)을 뜻한다.

는 것으로 놓았으나, 250-260에서는 형상들의 상호결합만을 논해 오다가, 260부터 갑자기 다시 개별자를 논하고 있다. 더우기 이방인은 진술을 이름과 명사의 결합으로 정의할 때에도 개별자의 예를 전혀 들지 않는다.(사자, 사슴, 말, 사람 등은 개별자가 아니다) 오히려 개별자의 예는 263에서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논할 때에야 비로소 나온다. 플라톤은 어째서 이렇게 이상하게 대화편을 구성했을까?

플라톤이 형상들의 상호결합을 그토록 길게 다루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이, 형상들의 결합이 플라톤 자신의 초/중기 형상론과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피스트는 개별자와 관련해서도 많은 거짓진술을 만들어내므로,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서 거짓이 가능함”도 증명해야 한다. 만약 플라톤의 의도가 이와 같다면,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을 다룰 때 비로소 개별자가 등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위와 같은 필자의 해석이 옳다면, 250-264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 ㉠ 파르메니데스 존재론과 플라톤 초/중기 형상론에 대한 보완 (250-260) : 어떤 형상들은 서로 결합하지만, 어떤 형상들은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결합하지 않는 형상들을 결합시킨 것이 거짓진술이다.)
- ㉡ 소피스트술 규정을 위한 전제 1 (261-263) : 진술은 이름과 동사가 결합된 것이다.
- ㉢ 소피스트술 규정을 위한 전제 2 (263-264) :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서도 거짓진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서 개별자와 형상은 어떻게 결합할까? 개별자와 형상의 결합방식은 거짓진술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거짓진술과 관련해서 하겠다. 하지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필자는 형상들이 서로 결합할 때 자기동일성을 잃으면서 움직여서는(또는 변화해서는) 안됨을 밝혔다. 그러나 이방인은 개별자와 형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각각의 영혼은 정의를 소유하고

함께함으로써 정의롭게 되고, 반대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반대로 되겠지?<sup>14)</sup>

개별자와 형상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움직임(변화)이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하는 쪽이 개별자일 수도 있고(영혼이 <정의로움>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롭게 됨), 형상일 수도 있다(형상이 인식됨으로써 움직임)는 점이다. 형상이 다른 형상과 결합할 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인식에 의해 개별자와 결합하면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때 형상의 자기동일성은 깨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형상을 인식할 때, 그 형상이 자기동일성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형상이 우리의 생각(logismos)에 의해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그 형상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필자는 “형상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형상의 움직임을 **이행**이라고 규정하겠다. 반면 우리의 영혼은 정의를 소유함으로써 정의롭게 되는데, 필자는 “영혼이 F라는 형상을 소유함(또는 함께함)으로써 F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자의 움직임을 **이행**이라고 규정하겠다.

『소피스트』편에서는 더이상 인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에 대한 언급도 더이상 없다. 아마도 형상의 움직임이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편들을 참고해야 할 듯하다. 반면 **이행**은 사실상 개별자-형상간의 참여관계와 같은데, 이 말은 앞으로 거짓진술을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IV. 거짓 진술

### 1. 거짓진술의 정의

소피스트술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우선 중요한 형상들 중에 <다름>이 있으며, <다름>이 바로 me-on이므로, 형상인 me-on은

14) 247a6-8. 이 때 영혼은 형상이 아니라 개별자이다.

<on>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인다. 즉 me-on은 medamos on(“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me-on의 아포리아(“우리는 me-on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일단 해소되었다. 하지만 아마도 소피스트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 것이다 : eidos들 중 어떤 것은 me-on에 참여하는 반면, 어떤 것은 참여하지 않는다. 진술(logos)이나 판단(doxa)은 me-on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에 속한다... 만약 진술이나 판단이 me-on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모상제작술이나 가상제작술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게 되며, 거짓도 불가능하게 된다. (260d8-e4)

따라서 소피스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이나 판단과 me-on이 결합함을 보여야 하는데, 우선 진술의 의미가 다루어진다.

- ① 소리로 실재(ousia)를 밝혀주는 것(delom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은 이름(onoma)과 동사(rhema)이다.
- ② 이름(onoma)은 행동하는 주체들에 붙여진 소리의 기호(semainon tes phones)이며, 동사(rhema)는 행동(praxis)들에 대한 deloma이다.
- ③ 그런데 이름(onoma)과 동사(rhema)를 섞기(keraze) 전에는, 말해진 것들(phonethenta)이 어떤 행동이나 비행동(apraxia)도 밝혀주지(delo) 않으며, on의 본성(ousia)이나 me-on의 본성(ousia)을 밝혀주지 않는다.<sup>15)</sup>
- ④ 쉬울 때 그들(onoma와 rhema)은 잘 화합하며(hermosen), 최초의 결합이 곧장 일차적이고 가장 작은 진술이 된다. 가령 “사람은 배운다.”
- ⑤ 이것은 이름과 동사를 결합함으로써, 단순히 어떤 것을 이름붙일(onomazei)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룬다(ti perainei). 이때 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합을 가지고 진술이라고 한다.
- ⑥ 따라서 소리의 기호들 중에서 어떤 것은 결합하지 않지만, 어떤

15) 즉 이름끼리만 결합(“사자, 사슴, 말”)하거나, 동사끼리만 결합하면(“걷다, 뛰다, 잡자다”), 진술이 되지 않는다.

것은 결합함으로써 진술을 만든다.<sup>16)</sup>

이와 같이 진술이 이름과 동사의 결합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은 형사일 수도 있지만 개별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술은 [형상+형상]의 유형과 [개별자+형상]의 유형으로 나뉜다. [형상+형상] 유형의 진술은 이미 논의했으므로, 이방인은 이제 [개별자+형상] 유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을 규정하고자 한다.

- ㉠ 진술(logos)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medamos on에 대한 진술은 불가능하므로).
- ㉡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지금 내가 함께 얘기하는)가 날고 있다.”는 진술 모두는 나에 대한 것(peri emou)이고 나의 것(emos)이다. 그러나 전자는 참이고 후자는 거짓이다.
- ㉢ 참인 진술은 너에 관해(peri sou) -인 것(onta)을 -이라고(esti라고) 말한다.
- ㉣ 반면 거짓 진술은 onta와 다른 것들을(hetera ton onton) esti라고 말한다. 따라서 me onta를 onta라고 말한다.
- ㉤ 이것은 존재하는 것들(onton) 중에서, 너에 대해 다른 것들(hetera peri sou)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에 대해 많은 것들이 onta이고, 또 많은 것들이 ouk onta라고 말했으니가.
- ㉥ 위의 논의를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에 적용하면,
  - ㉦ 이 진술은 진술(logos)의 규정에 따르면, 가장 짧은 진술들 중 하나이다.
  - ㉧ 이 진술은 어떤 것, 즉 너에 대한 것이다.
  - ㉨ 너에 대해서 “me-on이 on”이라고 말해진 것들, 이름과 동사의 이같은 결합이 진정으로(ontos하고 alethos하게) 거짓된 진술이 되는 듯하다.<sup>17)</sup>

위의 논변에서 거짓 진술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규정은

16) 여기까지는 261e6-262d7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17) 참인 진술과 거짓진술의 정의는 262e6-263d4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me-on peri X]이며, 반면 참된 진술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규정  
은 [on peri X]이다.<sup>18)</sup> 그렇다면 이때 me-on이나 on이 가리키는 것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다른 주  
석가들의 견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 2.1. 앓아 있음과 날고 있음

거짓진술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론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다”는 테아이테토  
스가 <앓아 있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인 반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므로, 진술이 참인 이유(<앓아 있음>에 참여하기 때  
문)와 거짓인 이유(<앓아 있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가 다르다.<sup>19)</sup>

하지만 이런 해석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지 않다”가  
거짓인 이유는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지 않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런데 me-A는 A 이외의 형상들로 이루어지며,  
<앓아 있지 않음>도 <앓아 있음> 이외의 형상들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만약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음> 이외에 어떤 형상과 결합한  
다면(가령 <수학자임>), 테아이테토스는 <앓아 있지 않음>에 참여  
하게 된다. 결국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지 않다”가 거짓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음>과 <수학자임>에 동시에  
참여한다면, 테아이테토스는 <앓아 있음>과 <앓아 있지 않음>에 동  
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 A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다(x is A)”와 “테아이테토스가 앓아 있지 않다(x is not A)”가  
동시에 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물에 어긋난다.

위의 해석은 이처럼 심각한 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곧바로 기각되  
었다. 주석가들은 이론 A와 같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석방

18) me-on peri X는 “X에 관해 me-on”을 의미하며, on peri X는 “X에 관해 on”을 뜻한다.

19) 블럭이나 쉬퍼 등이 이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식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먼저 옥스포드 해석(Oxford interpretation)을 보자.<sup>20)</sup> 이 해석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가 거짓인 이유는 테아이테토스의 모든 속성이 <날고 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인식론상의 난점이다. <날고 있음>이 테아이테토스의 모든 속성과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테아이테토스의 모든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옥스포드 해석은 “다르다”를 “같지 않다”로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가 옳은 반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가 거짓인 이유는, 단지 <앉아 있음>과 <날고 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가령 <창백함>과 <앉아 있음>은 동일하지 않지만, 테아이테토스는 동시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 반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날고 있을 수는 없다.

한편 다른 주석가들은 me-on을 “양립불가능하다(enantion)”로 해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가 거짓인 이유는 <날고 있음>이 테아이테토스의 어떤 속성과 서로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심각한 난점에 부딪힌다. 가령 지금 여기에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고 하자. 이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는 물론 참이다. 하지만 “테아이테토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참인가, 거짓인가?

i) 만약 <생각하고 있음>과 <앉아 있음>이 양립불가능하다면, “테아이테토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짓이 된다. 하지만 테아이테토스가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테아이테토스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테아이테토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짓이 된다.

ii) 한편 <생각하고 있음>과 <앉아 있음>이 양립가능하면 어떻

20) 이 해석을 주장하는 주석가는 Ross, Crombie, Frede, Owen 등이다. 이들의 해석을 Oxford interpretation이라고 명명한 것은 Keyt인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까? 어떤 사태  $k$ 를 설명해 주는 이론  $A$ 와 이론  $B$ 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해서  $A$ 와  $B$  모두가  $k$ 에 대해 옳다고 보기는 힘들다. <생각하고 있음>과 <앉아 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테아이테토스는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가 생각하고 있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립가능성 이외에 또다른 전제가 필요하다. 거짓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인 전제(즉 양립불가능성) 자체가 다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 2.2. 이름과 동사, 그리고 참여

필자는 앞절에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았다. 그렇다면 거짓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한 [me-on peri X]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확인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진술이 [형상+형상] 유형과 [개별자+형상] 유형으로 나뉘며, 260이하에서 거짓진술을 논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거짓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서 이름과 동사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만약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까닭은 <아름다움>에 참여하기 때문이며, 그 밖의 다른 어떤 원인 때문도 아니라고 여겨지네.(『파이돈』 100c4-6)

플라톤의 초/중기 형상론에서 개별자  $a$ 가  $F$ 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형상  $F$ 에 참여함으로써이다. 이 점은 『소피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자신 안에 정의로움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의롭게 된다. 필자는 이같은 영혼의 움직임을 **움직임 2**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름-동사(또는 개별자-형상) 간의 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가령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를 보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게 되는 것은 <앉아 있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on peri 테아이테토스]는 테아이테토스가 지금 참여

하고 있는 형상(즉 <앉아 있음>)이 되며, [me-on peri 테아이테토스]는 테아이테토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형상과 다른 형상(즉 <날고 있음>)이 된다. 결국 진술에서 이름과 동사로 결합하고 있는 개별자와 형상의 관계는 초/중기 형상론의 참여관계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개별자와 형상(이름과 동사)의 관계를 참여관계로 놓을 경우, 양립가능성에서 생겼던 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음>과 <생각하고 있음>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동시에 참이다. 또한 테아이테토스가 비행기에 앉아서 하늘을 날 경우,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음>과 <날고 있음>에 동시에 참여하므로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모두가 참이 된다.

그러면 이같은 고찰을 토대로 거짓 진술에 대한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지금 내가 함께 얘기하는)가 날고 있다.”는 모두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전자는 참이고 후자는 거짓인데, 그 이유는 전자는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on peri X : 이 경우 <앉아 있음>)을 참여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하는 반면, 후자는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과는 다른 형상(me-on peri X : 여기서 <날고 있음>)을 참여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날고 있음>이 [me-on peri 테아이테토스]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존재하는 형상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각각에 대해 많은 것이 on이고, 또 많은 것들이 me-on임을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진술의 정체가 밝혀졌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서 참인 진술은 개별자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을 참여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기술하는 것이며, 거짓진술은 개별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형상을 참여하고 있는 형상으로(또는 참여하고 있는 형상을 참여하고 있지 않는 형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sup>21)</sup> 결국 우리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나 사기도 가능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써 소피스트를 사기꾼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 3. 감각과 진술

필자는 [on peri X]를 참여하고 있는 형상으로, [me-on peri X]를 참여하고 있는 형상과 다른 형상으로 해석함으로써 거짓진술의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혹자는 [me-on peri X]를 참여하고 있는 형상과 다른 형상으로 해석한다면 양립불가능성 해석이 가지는 난점은 피할 수 있지만, 옥스포드 해석이 가지는 난점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 모두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 모두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별자는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움직이게 된다(필자는 이 경우 개별자의 움직임을 움직임 2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반대로 우리는 개별자의 움직임을 움직임 2를 봄으로써 그 개별자가 어떤 형상에 참여했는가를 알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테아이테토스의 움직임을 2를 보고, 이로써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때 “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뜻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 ① 사고(dianoia)와 진술(logos)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 즉 사고는 “영혼 안에서 소리없이 자기자신에 대해 생기는 대화(dialogos)”이고, 진술은 “영혼으로부터 입을 통해 소

21) 여기에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면, 두 가지 진술이 거짓이 된다.

- (ㄱ)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 이 진술은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형상(즉 <날고 있음>)을 참여하는 형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ㄴ)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지 않다” :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지 않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앉아 있음> 이외의 형상에 참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형상(즉 <앉아 있음>)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형상이라고 기술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 리와 함께 흐르는 흐름(reuma)”이다.
- ② 진술 안에는 긍정(phasis)과 부정(apophasis)이 있다.
  - ③ 이것(긍정과 부정)이 영혼 안에서 사고에 조용히 생기는 것이 판단(doxa)<sup>22)</sup>이다.
  - ④ 판단이 그 자체로가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런 겪음(pathos)을 보임(phantasia)이라고 부른다.
  - ⑤ 진술이 참 또는 거짓이고, 사고가 영혼의 자기자신에 대한 대화이며, 판단은 사고의 결과이고, “-로 보이다(phainetai)”는 감각과 판단의 결합이라고 말해졌으므로, 이것들은 진술로서 같은 성질을 지니면서도 이것들 중 어떤 것은 어떤 때에 거짓이 된다.(263d6-264b3)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가 거짓인 이유는 <날고 있음>이 [me-on peri 테아이테토스]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거짓판단을 말하면서 “보임(phainetai)이 감각과 판단의 결합이므로, 거짓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도대체 어디에 감각이 결합되어 거짓이 생겨난다는 말인가?

필자는 여기서 “감각이 결합되어 있다”가 거짓진술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263d6-264b3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 진술 중에는 긍정과 부정이 생겨나는데, 긍정과 부정이 영혼 안에서 사고에 조용히 생겨나는 것이 판단이다. 그런데 판단은 둘로 나뉜다 : ㉠ 감각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로 생겨나는 판단 ㉡ 감각을 통해 생겨나는 판단(즉 보임). 이 때, 보임(phantasia)에 의해 거짓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263d6-264b3은 264이전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필자는 ㉠가 [형상+형상] 유형의 진술을 나타내주는 반면, ㉡는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진술을 하면서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한다. 가령 다

22) 플라톤의 많은 대화편에서 doxa는 지식(epistem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하지만 『소피스트』편에서 doxa는 감각대상에 대한 불확실한 의견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때문에 필자는 이 말을 “판단(judgement)”이라고 번역했다. 『테아이테토스』편 189e-190c에서도 플라톤은 “doxazein은 legein이고, doxa는 logos이다”라고 말한다.

음과 같은 두 가지 긍정문이 있을 수 있다.

- i) <운동>이 존재한다.
- ii)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위에서 i)은 형상들 사이의 결합이다. 우리는 이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i)은 그 자체로 생겨난다. 반면 ii)는 개별자와 형상 사이의 결합이다. 이 때 개별자는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움직인다(움직임 2). 따라서 우리는 개별자의 움직임 2를 보고 그 개별자가 어떤 형상에 참여했는가를 판단한다. 그런데 개별자와 형상의 참여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날고 있음>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개별자의 움직임 2를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임 2를 잘못 파악한 판단은 거짓판단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본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개별자의 움직임 2를 파악할 때 감각이 어떻게 개입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테아이테토스는 수학자이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테아이테토스가 수학자임을 본다고 말할 때, “본다”는 단순히 감각자료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추론함으로써 테아이테토스가 수학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감각자료를 수집해서 형상과의 연관관계를 추론하는 과정 전체를 “본다”라고 사용하겠다. “감각”이라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각대상은 일상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개별자와 형상의 참여(또는 움직임 2)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초/중기 형상론에서 감각대상(개별자)과 형상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참여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소피스트』편은 감각대상과 형상의 참여관계뿐 아니라 형상과 형상의 결합까지도 다루며, [형상+형상] 유형의 진술과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을 구분한다. 또한 [형상+형상] 유형의 진술은 “그 자체로(이 말은 본래 형상을 특징짓는 말이었다)”라는 말로 특징지워지는 한편,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은 “감각을 통해서”라는 말로 특징지워진다. 필자는 이 때 “그 자체로”/“감각을 통해서”의 구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a) 어떤 진술이 형상들만으로 이루어지는가, 개별자(감각대상)도 포함하는가

(b) 형상들의 상호결합은 필연적인 반면, 개별자와 형상은 결합할 수도,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는 감각이라는 우연적인 계기가 개입한다.

#### IV. 결론

여기까지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 대해서도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앞서 말한 바 있듯이, “형상들이 서로 결합함”은 “우리에게 진술이 생겨남”의 충분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필자는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의 경우에는 “형상들이 서로 결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별자+형상] 유형의 진술에도 형상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상들이 (다른 형상과, 또는 개별자와) 결합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소피스트』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형상들의 결합은 자기기술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가령 “같은 자기자신과 같다.”나 “다른 것은 같음과 다르다.”를 보자. 이 경우 <같은>과 <같은>, 또는 <다른>과 <다른>이 서로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형상들의 결합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밖으로부터의 결합이다. 그러면 <같은>이 자기자신과 밖으로부터 결합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 과연 형상이 자기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초/중기 형상론의 자기기술 문제를 연상시킨다. 가령 플라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있는 말인가? 이같은 자기기술 문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으나, 필자는 일단

앨런(Allen)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F-ness(이데아)가 F라는 것은 자기동일성(identity)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개별자들이 F라고 말하는 것은 [개별자는 형상의 모사이고, 형상은 개별자의 범형이자 공동의 이름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르다.<sup>23)</sup> 만약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진술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 i) 개별자와 형상의 참여 관계
- ii) 서로 다른 형상들의 비대칭적인 밖으로부터의 결합 관계
- iii) 형상의 자기자신과의 동일성 관계

그러나 형상의 자기기술 문제를 “자기자신과의 동일성 관계”로 해결하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운동>은 운동한다”나 “<정지>는 정지한다”를 보자. 과연 이 두 진술이 자기동일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형상은 항상 그 자체로(kath' auta) 존재해야 하므로 “<운동>은 정지한다”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한편 248e에서 이방인은 “실재(ousia)가 앎에 의해 인식된다면, 그것이 인식되는 한, 겪음을 통해(dia to paschein)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정지>도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반론에 대해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서 움직임의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즉 형상이 인식 과정에서 움직인다(움직임 1)는 말과 개별자가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움직인다(움직임 2)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아마도 이 점은 정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형상이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정지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정지함을 뜻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전자(형상이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함)를 정지 2라고 하고, 후자(물리적인 정지)를 정지 1이라고 하자. 이 때 <운동>과 <정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게 된다.

- a. <운동>은 정지한다<sub>2</sub>.(정지 2)
- b. <정지>는 운동한다<sub>1</sub>.(움직임 1)

23) R.E.Allen,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Plato's Middle Dialogues*,(in Vlastos, **Plato 1**, Anchor Books, 1971) 167-171p

하지만 이방인은 “<운동>이 <정지>에 참여하면(또는 <정지>가 <운동>에 참여하면) 상대방을 자신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바꾸도록 강요할 것이다”(255a12-b2)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문제는 “본성상 반대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운동이나 정지의 의미가 다의적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이 결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소피스트』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필자의 제안이 얼마나 타당한가는 다른 대화편들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듯하다.